

“이삭의 신부 구하기”

창24:1-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애를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믿음 성장뿐 아니라 그 믿음이 자손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내 자녀도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축복은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전승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매우 ‘인류시대’라고 할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 신앙적 결혼원칙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24:2)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놓으라” 믿음의 결혼은 이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을 불러서 사상 최대의 임무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 즉 믿지 않는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종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허벅지 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가장 중요한 곳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한 곳입니다. 그만큼 변할 수 없는 맹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전에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 이 임무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 이루어지고 결국 메시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는 어떤 일이든지 경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나중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세상에 많은 재미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고 공부를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생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이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명을 위해 목숨도 내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는 본질에 충실한 자입니다. 비본질에 억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본질은 바로 가치관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오직 내 생각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1. 믿음의 배우자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아무데나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인물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영적 순결과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결혼이 늦어 진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믿음 있고 순결한 여자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헷족속과 살면서 그들의 삶을 잘 보았습니다. 이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성적으로 타락한 족속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한 도시였지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은 영적으로 순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나이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람을 택합니다. 가문이나 학벌이나 외모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지 여부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경한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항상 먼저입니다.

2. 말씀을 부여 잡는 배우자

“(창 24:5-6)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종은 만약 신부가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야기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 그 여자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뻐 보이고 좋아 보여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사업과 직장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 신앙이 더 성장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이 가나안을 떠날 수 없으며, 만약 이삭의 아내라면 그 얼굴을 보지 않고서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자라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않고서도 말씀만 듣고 떠날 수 있는 여자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결혼 조건에 믿음을 제시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이런 신부 즉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더러운 죄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듣고서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적도 없지만 말씀만 듣고서 따라 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공급해 준다고 해도 말씀에 어긋나면 받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가난해 지더라도 절대로 가져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도 찾고 계신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눈부시고 화려한 신부입니다.

3. 아들의 배우자 결정에 담긴 아브라함의 신앙고백

“(창 24:7-8)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백세에 주셨으니 분명히 신부도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이삭을 본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통찰력과 믿음으로 나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실 때 씨를 주시고 그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기만 하면, 그 모든 약속의 성취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확신하는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은 그에게 씨를 주실 것이며 그 씨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믿는 것보다 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매일 여러 가지의 문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쓰나미가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쳐 모든 것을 쓸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날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약속대로 풍성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모든 일을 준비 시켜 주실 것이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직장이나 결혼 문제에서 믿음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때가 언젠가 될지 자기 자신을 더욱 믿음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삭(아들)의 배우자 선택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믿음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많은 결정과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 때에 무엇을 볼드시겠습니까? 환경을 붙들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분의 말씀을 집중하여 붙드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애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한 평생 나의 삶을 두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명을 달성하기 전까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 희생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3. 사위나 며느리 감을 정할 때에(혹은 본인의 배우자 감을 정할 때에),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 외에 신앙적으로 도움될 만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도 나눠 주십시오)
4. 세상적인 기준과 성경적 기준이 다른 케이스들을 각자 생각해 보시고 나눠 주십시오.(예, 성공의 기준, 사업의 기준, 전공선택의 기준, 직장선택의 기준 등) 세상적 기준을 따라 결정했다가 후회한 예, 성경적 기준으로 선택했다가 결국에 누린 은혜들을 케이스별로 자유롭게 나눠 주십시오.
5. 4월 6일부터 시작되는 목장별 100일 성경통독에 대해서 일정을 안내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서로를 격려하여 완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